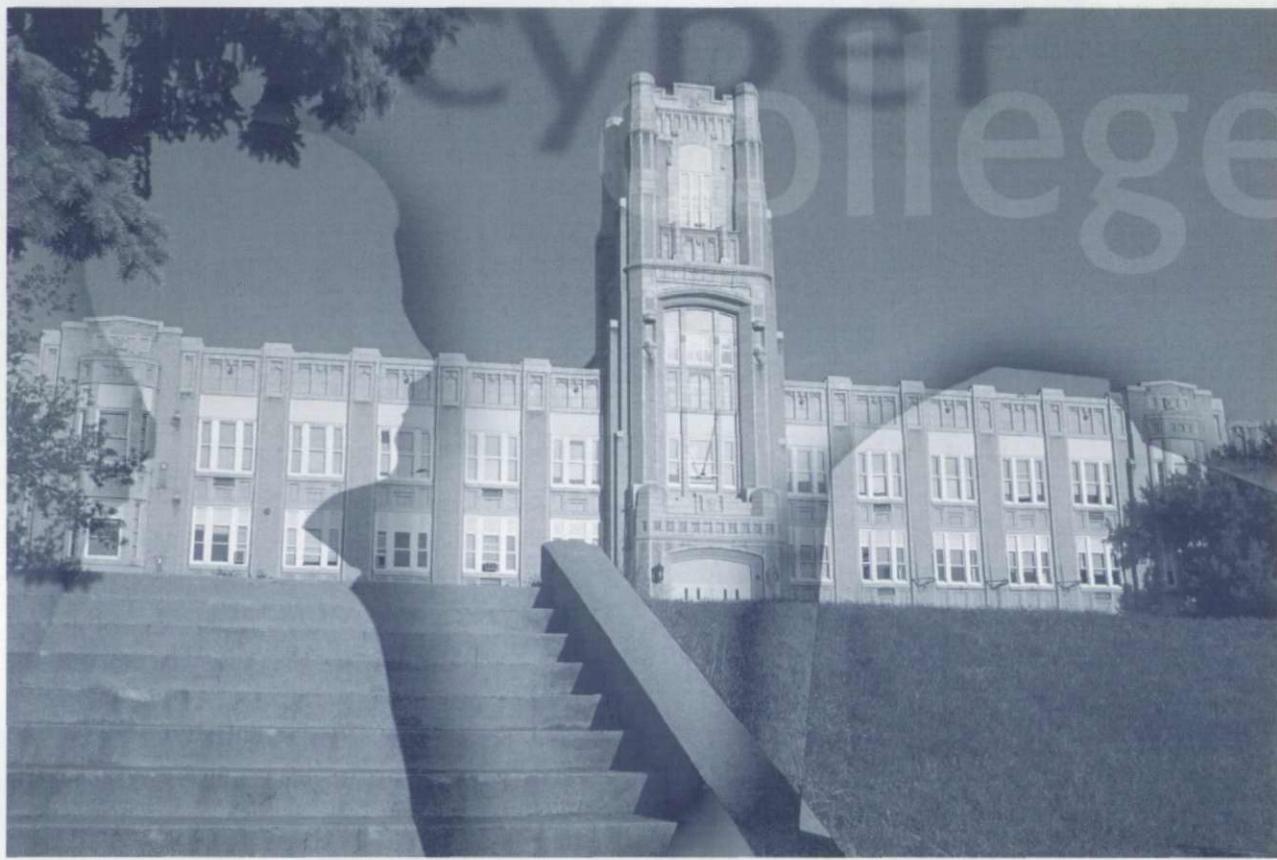


해외 사이버교육 및 대학의 현황

2004년 3,300여 대학으로 확산 국가 차원의 자금지원 및 정책적 배려 시급



정의석/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연구원
s9355064@dpc.or.kr



언제 (AnyTime), 어디서나(AnyWhere), 누구나
(AnyBody)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교육은 세계 교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있다.

메릴린치보고서에 따르면 5년 내 수백만 명의 학생이 등록하는
'글로벌 사이버대학'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 가운데, "사이버

대학"이 훌쩍 우리 눈앞에서 다가오면서 새로운 학습기회의 장으로 펼쳐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IDC는 지난 2000년에 e-교육을 도입한 대학은 약 2천여 곳이고, 오는 2004년에는 3천300여 대학에서 e-교육에 눈길을 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교육 과정을 등록한 학생 역시 2004년까지 매년 33%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아는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올해 9개의 사이버대학이 개교를 했으며, 내년에는 일곱 곳이 새로 문을 열어 신입생 4천8백명을 모집할 전망이여서, 내년 2002년도에는 16개 사이버 대학에 1만명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5~10년 앞서 사이버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21세기에 도래한 "지식정보화사회"의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사이버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열린교육에서 나온다는 점을 인식하며 자금지원과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사이버 대학들은 일반 대학보다 조금 싼 학비를 받고 지리적 제약을 받고 있는 외국학생,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있는 직장인, 대학 학비가 부담이 되는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학연저널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 사이버대학의 운영현황을 알아보고, 국내 사이버대학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해외 사이버대학 운영 형태

현재 세계 선진국들은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교육방식만으로는 지식노동자가 경제활동의 주축이 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기존의 교육방식을 온라인(사이버)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학교에서 출석수업을 받아야만 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음을 일찍 간파하고 사이버교육 시장의 선두가 되기 위해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 사이버교육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유형은 기존 오프라인 대학의 일부 교육과정을 사이버수업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미네소타 대학의 성인교육 프로그램, 위스콘신대학의 중국어 강좌 등이 있다.

둘째 유형은 기존의 오프라인대학이 사이버대학을 설립하여 대학의 전 과정을 사이버공간에서 수업하는 형태로 피닉스대학의 온라인 캠퍼스, 캐나다 뉴 브仑스윅 전문대학의 사이버캠퍼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째 유형은 기존의 방송대학이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여 일부 과정을 사이버공간에서 수업하거나 주된 교육매체를 방송에서 컴퓨터통신체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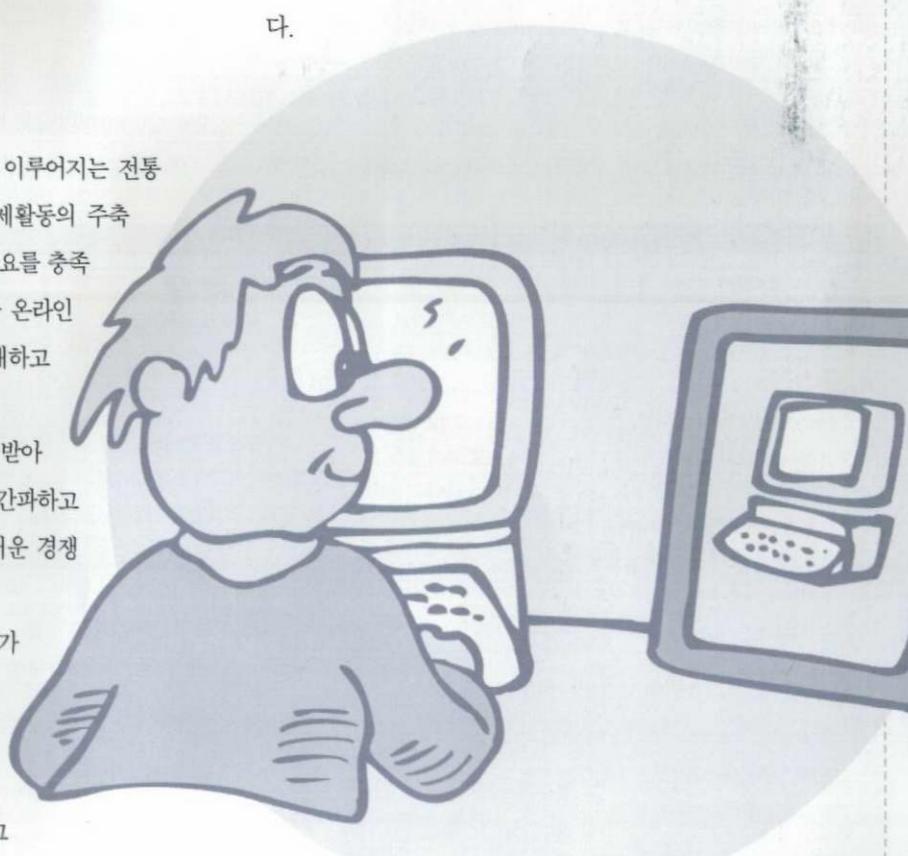
네째 유형은 새로운 사이버대학을 설립하는 형태로 미국의 서부가상대학 (Western Governors University), 존스인터내셔널 대학 (Jone's International University) 등이다.

● 미국

인터넷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미국은 사이버교육 시장에서도 단연 발빠르게 앞서나가고 있다.

IDC 자료에 따르면 미국 사이버교육시장은 지난해 총 22억달러 규모를 형성한 가운데 오는 2003년에는 사이버교육시장이 114억달러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현재 약 80%를 점하고 있는 전통적인 클래스교육이 2003년이 되면 50%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997년 4월 미국 행정부는 인터넷이 교수, 학습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온라인 교육자료가 교육현장에 공급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고, 지난 12월에 “학생들의 손 끝에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온라인 교육(e-Learning)을 표제로 한 국가교육정보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온라인교육 컨텐츠 및 네트워크 활용기술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국가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미국은 1982년부터 원격교육을 정규학위과정으로 인정해오고 있다. 기존 2년제/4년제 대학의 약 1/3이 원격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지금 사이버대학에서 개설된 교육과정은 대개의 경우 MBA과정이나 비즈니스, 경영, 마케팅 관련 수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미국은 현재 1,661,100개의 사이버 교육과정이 등록되어 있고, 약 2000만명의 학생들이 사이버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현재 미국내에서 가상대학으로 인정받는 곳은 지난 84년에 설립된 국립기술대학(National Technological University)를 비롯해 카펠라(Capella University), 카던대(Cardean Uni), 콩코드 법과대(Concord University School of Law), 존스인터내셔널대(Jones International Uni), NYUonline, 온라인러닝(Online-Learning.net), 펜세어(Pensare), 유니버시티 엑세스(University Access) 들이다.

미국내 거의 모든 대학이 사이버교육(원격교육)과정을 준비하-

고 있거나, 실시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미국 사이버대학 운영현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피닉스대 온라인 캠퍼스(www.phoenix.edu)

미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사이버대학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의 피닉스대 온라인 캠퍼스이다.

피닉스대 온라인캠퍼스는 1989년에 만들어져 총학생수 4만명 중 1,700여명이 한번도 출석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고 있다.

피닉스대는 미국내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 학생 4,000여명이 등록해 수강신청, 강의, 시험 등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입학은 아무때나 할 수 있지만 매번 5번이상 컴퓨터에 접속해야하고 평균 학점이 2.0(대학원 3.0)을 넘지 못하면 학사경고를 받는다.

수업료는 학부과정이 1학점당 350달러, 대학원과정이 425달러로 사립대학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반 대학들과 달리 한학기 등록금을 한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한 강좌를 들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수업료가 청구된다.

교육방법은 온라인 컨퍼런싱, 메일링 리스트, 실시간/비 실시간 토론을 하고 도서목록 검색 서비스, UOP온라인 컬렉션, 문자 전달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② 존스대학

미국에서 100% 사이버대학으로 첫 공인된 곳이 존스대학(www.jonesinternational.edu)이다.

이 대학은 외국학생의 경우 토플점수 550점이상을 요구한다.

(표-1)

대학명	학위프로그램	입학 요건	학비	개설 과목
UNIVERSITY OF REIMS (www.univ-reims.fr/ctu)	석사: MA Philosophy/ MA Psychology	대학교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추천서	연간 1,439 FF	대학원 전공 : Philosophy/Psychology
UNIVERSITY DE ROUEN (telesup.univ-mrs.fr)	학사: BA FrenchBA, BA Linguistics, BA Modern Language and Literature · 석사 : MA French	성적증명/자기소개서/추천서	연간 1,150 FF	?
INSTITUT BRITANNIQUE DE PARIS (www.bip.lon.ac.kr)	수료프로그램 개설	Placement test	프로그램에 따라 다름	English/French
UNIVERSITY CHARLES DE GAULLE LILLE II (www.univ-lille3.fr)	졸업(Diploma)프로그램 12분야 개설	학사 학위	파독당 270FF (250FF 추가비용), 연간 1,600FF	Arabic/Dutch/education/English/ Geography/German/Hebrew/ History/history of art/Italian/Latin/ Modern literature/Polish/Russian
UNIVERSITY OF NANTES (www.umedia.univ-nantes.fr)	졸업(Diploma) 프로그램 2분야 개설	학사학위/24세 이상	과목에 따라 다양함	Biology/Business/Communication/ Computing/Education/English/ French/Literature/History/Geography/ Law/Mathematics/Physics

학비는 학사과정이 한 코스당 600달러, 기술지원비 25달러 등 등록비(단 한번) 35달러로 낮은 등록금과 혁신적인 수업모델로 인기가 높다. 현재 34개국 950여명의 학생들이 이 사이버대학을 다니고 있다.

③ 기타 대학

뉴욕대학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온라인 강의(NYU-Online)를 시작했다.

UNext.com 회사에서는 컬럼비아대(Columbia University), 시카고대학(Univisity of Chicago), 그리고 스텐퍼드대(Stanford University) 등과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대학원 교육콘텐츠를 기업 고객에게 공급하는 칼딘대(Cardean University)을 설립, 운영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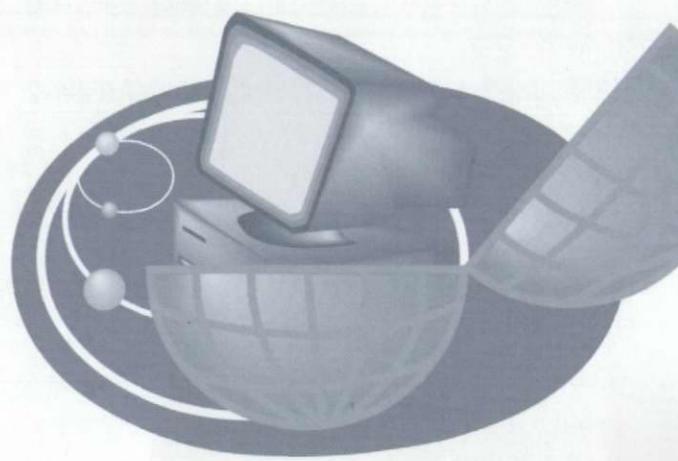
휘닉스 대학(University of Phoenix)의 경우는 1989년부터 온라인 교육을 준비하여 1999년에는 정규 학생보다 많은 1만3천8백명의 온라인 등록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다.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멜론(Carnegie Mellon University) 대학의 경우도 카네기기술교육원(Carnegie Technology Education)을 설립, 우선적으로 소프트웨어공학 교육을 웹기반 온라인 교육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직은 비학위 과정으로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인증서”를 주는 것에 그치고 있으나, 곧 학위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카네기 공학 교육’센터와 인도의 한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자격 과정 등을 인터넷을 통해 인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하버드 대학도 사이버 교육에 관심을 보



이며 올해 초에 하버드 대학만의 벤처인 「하버드를 가정에(Harvard at Home)」라는 조직을 만들어 단기 모듈 형식으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강좌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아메리칸 대학(www.amercoll.edu), 아틀랜틱 커뮤니티대(www.atlantic.edu), 조지워싱턴대(www.gwu.edu/~distance), 미네소타대(www.cee.umn.edu/dis/), 펜실베니아주립대(www.outreach.psu.edu/de/)등이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양질의 교육을 받을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이미 e-Learning이 오프라인 교육을 보완하는 새로운 교육유형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교육정책에 의해 2002년까지 정부 주도로 프랑스내 모든 대학

[표-2]

대학명	학위프로그램	입학 요건	학비	개설 과목
UNIVERSITY OF WALES-BANGOR	석사:MBA Business Administration	대학교 성적증명서/ TOFEL 또는 IELTS Test	Full Program(30개월): \$7,500 Accele	대학원 전공과목 개설
HERIOT-WATT UNIVERSITY (www.hwmba.edu)	석사: MBA Business Administration, MS Human Resources	없음	과목당 \$935(약 110만원)	대학원 일반 과목
UNIVERSITY OF NOTTINGHAM (www.nottingham.ac.uk)	Ergonomics에 관한 학부 및 대학원	없음	총 \$6,930~11,000	대학/대학원 전공과목
UNIVERSITY OF LONDON EXTERNAL PROGRAMME (www.lon.ac.uk)	석사	대학교 성적증명서, TOEFL, 자기 소개서, 추천서	과목에 따라 다름	학부/대학원 일반 과목 개설
UNIVERSITY COLLEGE LONDON (www.ucd.ac.uk)	학사:MS Electronic and Electronical Engineering 석사:MA (Postgraduate Diploma 프로그램도 개설)	대학교 성적증명서/TOEFL 580점이상/자기소개서/추천서	연간 \$5,000~8,450	학사프로그램 개설
UNIVERSITY OF WALES-ABERYSTWYTH	학사,석사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British Council IELTS	연간 \$1,000~1,300	대학원전공과목 개설

간 네트워크를 연결한 교육을 실현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가 주도가 되어 각 대학의 사이버교육시설과 양질의 교육내용을 강화하고 전국대학을 연결한 “디지털캠퍼스”를 창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대학운영 등을 목표를 삼아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다.

프랑스의 사이버대학운영 형태는 대부분 기존의 온라인 대학들이 사이버교육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프랑스 각 대학의 사이버교육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INSTITUT BRITANNIQUE DE PARIS는 1996년 이후 런던 대학의 한 부설기관으로 원격수업으로 모든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UNIVERSITY CHARLES DE GAULLE LILLE II는 Vil-

leneuve d' Ascq시 소재한 4년제 공립대학으로 프랑스의 원거리 수업을 제공중인 22개 대학교 연합체(FIED)의 회원교이다.

원격수업방법으로 주로 교과서와 테일 및 소프트웨어 등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학생들은 University of Charles de Gaulle Lille III 층과 Centre de Tele-Enseignement에 모두 등록을 해야 한다. 청강을 원하는 학생들도 정식 입학 없이 수강이 가능하다.

낭트대학은 4년제 공립대학으로 원거리 수업으로 프랑스 대학 입학 시험인 UNIVERSITY Diploma Entry Special Examination(DAEU)의 준비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자신의 희망 전공에 따라 DAEU A(문과)와 DAEU B(이과) 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요건은 24세 이상이며 직장경력이 있을 경우는 20세 이상도 가능하다.

University de Reims은 원격 교육을 제공하는 프랑스 22개 대학 연합인 FIED(Interuniversity Federation of Distance Teaching)의 회원대학으로, 학습방법으로 온라인 교육방법을 선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습과 자기 평가테스트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기법을 연구 진행중에 있어 사이버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기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이다.

● 영국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영국도 사이버 대학에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1997년 입각한 노동당 정부는 ‘평생 학습’을 강조하면서 사이버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

[표-3]

대학명	학위프로그램	입학 요건	학비	개설 과목
ACADIA UNIVERSITY (http://conted.acadiau.ca)	학부 : Business Administration/ Computer Science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TOEFL	과목당 \$407	약 45개 일반과목 개설
ATHABASCA UNIVERSITY (www.athabasca.ca)	학사/석사	성적증명서, TOEFL, 자기소개서	과목당 \$472	약 35개 과목 개설
MCGILL UNIVERSITY (www.education.mcgill.ca/distance)	학부/석사	성적증명서	과목당 \$971	학부 일반과목/대학원 일반과목/ 수료과목 개설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www.mun.ca)	수료 프로그램 개설	없음	학점당 \$220	학부 일반과목/대학원 일반과목/ 수료과목 개설
MOUNT SAINT VINCENT UNIVERSITY(www.msvu.ca)	학사/석사/수료 프로그램 개설	학위 프로그램에 따라 다름	대학: 과목당 \$405, 대학원: 과목당 \$837	학부 일반과목/대학원 일반과목/ 수료과목 개설
PRAIRIE BIBLE COLLEGE	2년제 학위/학사/수료 프로그램 개설	학위 프로그램에 따라 다름	대학: 학점당 \$39 대학원: \$119	학부 일반과목/대학원 일반과목 개설

황이다.

지난해 우수 대학의 협력체인 e-유니버시티(University)라는 벤처 설립을 지원한다는 발표를 해 양질의 사이버교육을 통해 세계 사이버교육 시장에서 한발 앞서나가겠다고 표명한 것은 이러한 영국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영국은 이미 많은 사이버대학에서 고급 과정의 교육이 운영되고 있어 출석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이에 외국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캠퍼스를 전혀 방문하지 않고도 학위를 받을 수 있고, 시간적 제약에서도 자유로워 사이버대학의 설립취지인 “열린교육사회, 평생교육 실현”을 잘 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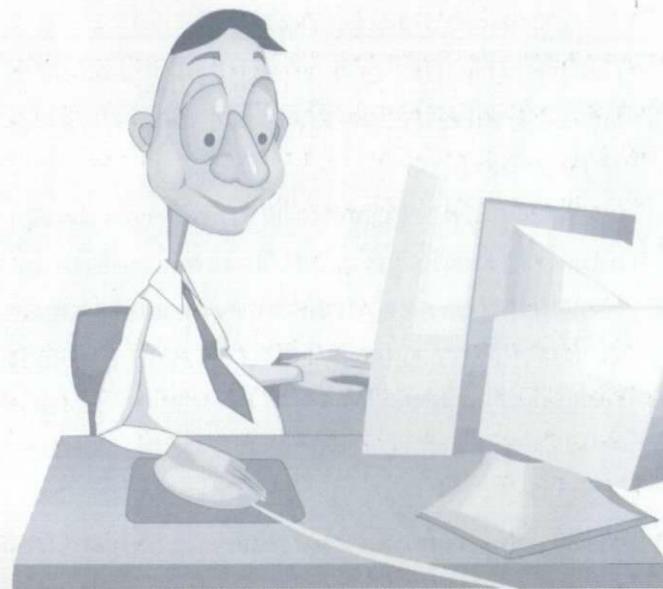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인 프린스턴·스탠퍼드·예일대학이 상호 공동 참여하여 “원격교육 벤처계획”을 지난해에 발표하면서, 졸업생·재학생 및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기로 하고 각각 3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영국의 주요 사이버대학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에딘버그(Edinburgh)에 소재한 헤리웃-와트 대학은(HERIOT-WATT UNIVERSITY) 1966년에 설립된 4년제 사립대학이다.

헤리웃-와트 대학교(HWU) MBA(www.hwmbs.edu)의 경우, 학부졸업 학력이 있으면 자동으로 입학이 되며 학부학위가 없어도 대학측이 제출한 일곱개 시험중 2개를 합격하면 MBA과정에 입학이 허용된다.

이 학교는 지원자의 자질은 과거의 학력이나 성적이 아닌 현재



의 성취도와 학습동기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입학 학생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HWU는 학습동기가 충분한 학생들에게는 학습기회가 충분히 제공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팅엄(Nottingham)시에 위치한 노팅엄 대학은 1798년 원래 캠브리지대학 최초의 성인교육학교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Ergonomics에 관한 학부 및 대학원 과목을 개설하여 온라인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런던 대학은 1836년 Royal Charter에 의해 설립된 4년제 공과대학으로 현재 산하에 50개 이상의 대학과 기관을 두고 있으며, 영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이버 학위를 개설하여 국내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런던 엑스터널 프로그램 대학(www.lon.ac.uk), 칼리지 런던대학(www.ucl.ac.uk), 웨일즈-반고어(www.bangor.ac.uk) 등 다른 대학들도 최소한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전세계 어디서든지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CDC(Canada's Digital Collection) 프로젝트 발표해 가장 네트워크화된 국가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사이버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3]

대학명	학위프로그램	입학 요건	학비
MONASH UNIVERSITY (www.monash.edu.au)	석사	대학교 성적증명서, TOEFL 550점이상, 자기소개서 등	학기당 \$6,000-8,000
MURDOCH UNIVERSITY (www.murdoch.edu.au)	학사/석사/ 수료프로그램(대학원) 개설	학위프로그램에 따라 다름	학부: 연간 A\$11,200, 대학원: A\$22,000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www.unisa.edu.au)	학사/석사	학위프로그램에 따라 다름	과목에 따라 다름
UNIVERSITY OF WOOLONGONG(www.uow.edu.au)	석사/수료프로그램 (대학원)	대학교 성적증명서, TOEFL, 자기소개서	연간 약 \$9,000- 12,000
UNIVERSITY OF SYDNEY (www.cchs.usyd.edu.au)	석사/수료프로그램 (대학원)	대학교 성적증명서, TOEFL	학기당 \$3,750
UNIVERSITY OF QUEENSLAND (www.uq.edu.au)	석사/박사	학위프로그램에 따라 다름	학점당 \$130
UNIVERSITY OF NEW ENGLAND(www.une.edu.au)	학사/석사/박사	학위프로그램에 따라 다름	과목에 따라 다름

주요 사이버대학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의 사이버대학들은 각 대학들마다 독특한 교육과정운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비도 최소 \$407, 최대 \$971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UNIVERSITY OF GUELPH(www.open.uoguelph.ca), UNIVERSITY OF MANITOBA(www.umanitoba.ca), UNIVERSITY OF SASKATCHEWAN(www.extension.usask.ca), UNIVERSITY OF TORONTO, WILFRID LAURIER UNIVERSITY 등이 있다.

●호주

호주 정부도 전자정부 추진과 함께 사이버 교육시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 사이버교육시장에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주요 사이버대학 운영현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MONASH 대학은 4년제 공과대학으로 호주의 8개 국립 원거리 교육센터중의 하나로 가장 규모가 크다.

6개 지역에 캠퍼스를 두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신 수업 등록학생수만 약 12,500명 이상으로 외국학생들도 많이 등록되어 있다.

MURDOCH 대학은 1973년에 설립된 4년제 공립대학으로 최근에 많은 원거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NEW ENGLAND은 4년제 공립대학으로 호주에서 가장 먼저 원거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현재 약 17,000명이 등록되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다.

●기타 해외 국가

일본의 인터넷환경은 한국보다 약 2~3년 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사이버교육시장도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최근들어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지원, 사이버대학을 구축하는 단계이며 일부 기업의 자체 연수원 및 사이버교육 포털이 속속 생기는 상황이라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일본 NTT데이터는 향후 10년간의 일본 사이버교육 시장이 약 1조엔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미국·중국의 6개 대학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공통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전자캠퍼스'를 2002년 가을부터 시작한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한 바 있다.

중국도 지난해 8월 31개 사이버대학 인가를 시작으로 사이버 교육을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설정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일본과 함께 "전자캠퍼스"를 설립하여 2002년 가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언제 어디서나 사이버공간을 통해 강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론

선진국들의 사이버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들이 고조되면서 이제 교육시장은 사이버교육을 통해 개방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한국사이버교육학회가 사단법인으로 출범하고 전국 사이버대학 중심의 '사이버교육기관협의회'가 본격 활동에 나서는 등 학계/업계는 물론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사이버교육산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버대학이 우리나라 교육의 새로운 학습기회의 장으로 발달하고 있으나, 점차 적극적이 되고 있는 해외 사이버대학들과 사이버교육시장에서 경쟁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